

가) 윤석열의 상식 밖 언행, 참을 수가 없다

등록 :2022-02-21 13:47 수정 :2022-02-21 19:03

안재승 기자 사진
안재승 기자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 찍게 하려고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한다. 광주시민들의 투쟁 의지가 약해질까 봐 민주당이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 시도 때도 없이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며 쏟아내는 막말은 어떤가. 이쯤 되면 기본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재 지지율에서 선두를 다투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래저래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대선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어퍼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재승 | 논설위원실장

지난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상식 밖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을 운영해보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다.



윤 후보는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가 28 번의 주택정책으로 계속 실패를 거듭했지만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집 없는 사람이 민주당을 찍게 하려고 일부러 악의적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부동산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유력 대선 후보의 입에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집 없는 사람의 표를 얻으려고 집값을 고의로 폭등시키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나. 무주택자들을 바보로 아는가. 근거도 맥락도 논리도 없는 발언이다. 현 정부의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 수권 능력을 평가받을 생각은 안 하고 허무맹랑한 선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걸 ‘부동산 민심’ 공략이라고 한다.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윤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이 못사는 사람들은 자기편이라고 생각해서 양극화를 방치하고 조장했다”고도 했다. 증오를 부추기는 갈라치기도 문제이지만 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윤 후보는 18일 대구 달성군 유세에선 광주시민들의 투쟁 의지가 약해질까 봐 민주당이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형 쇼핑몰에 있는 좋은 물건들, 명품들 이런 것에 도시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자기들의 정치 거점 도시에 투쟁 능력, 투쟁 역량이 약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할 소리가 아니다. 유통 대기업의 매장 신설은 골목상권 보호와 소비자 편익이 충돌하는 민감한 문제다. 광주뿐 아니라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 주요 대도시마다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후보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악의적으로’ 반사이익을 얻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건가. 국민의힘은 이걸 ‘호남

민심' 공약이라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민생 문제에까지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민주화에 앞장서온 광주시민에 대한 모독이다.

사실 윤 후보의 '아무말 대잔치'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주 120 시간 노동'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 '집 없어서 청약통장 만들어본 적 없다' 등 셀 수가 없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더 악성화되고 있다. 무개념에 적대감까지 더해진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승리하겠다는 욕망의 민낯이 보인다. 입만 열면 쏟아내는 막말은 또 어떤가. 시도 때도 없이 허공에 어퍼컷을 날리며 "박살 내겠다" "말아먹었다" "거덜 났다" "나라 꼬라지" "죽보 팔이" "약탈 집단" "무식한 삼류 바보" 등 험악한 말들을 내뱉는다.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이 호응해주면 신이 나서 더 한다. 아이들이 보고 따라 할까 걱정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8일 저녁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자신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에 여권이 반발하자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짓"이라고 성낸다. 진솔하게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뒤집어씌운다. 히틀러도 이렇게까지 수준 낮은 선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그렇다. 이 후보도 문제성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윤 후보와는 수위와 빈도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시비비를 엄정하게 가려야 하는 선거판에서 께맏추기식 양비론은 비겁한 물타기다.

윤 후보는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고 거친 말을 쏟아낼까? '반문 세력' 결집을 위한 선거전략이라는 분석이 많다. 복잡한 공약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건 어렵지만, 막말은 힘도 안 들고 전달력도 좋다. 맹목적 지지자들의 마음에 바로 와닿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되지 않는다. 비정상적 언행이 끊이지 않는 탓에 기본 자질과 소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몸에 뻘다는 얘기다. '구둣발 무례'가 단적으로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다리가 아파 불편해서 그랬다고 '대리 해명'을 했는데, 보통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최소한 신발은 벗는다.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려놓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걸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거의 없다. 또 비판하면 윤 후보는 "친여 매체가 민주당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고 공격한다. 자신의 허물을 겹쳐히 인정하고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적대감을 드러낸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능력이 결여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사람이 현재 지지율에서 선두를 다투는 유력 대선 후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이래저래 근심과 걱정이 쌓이는 대선이다.

jsahn@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후원하기 후원제 소개

(1) 이슈 2022 대선

- 윤석열, 울진 찾아 이재민 위로..."집 지어드릴 테니 걱정마시라"
- 여성 커뮤니티에 글 올린 이재명 "여시님들,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세요!"
- 안철수 '지지자 달래기' 방송에 댓글 "손가락 자르시겠네요"
- 대선 사전투표율 17.57%...첫날 역대 최고치
- '추적단 불꽃' 이재명 찬조연설..."수많은 여성 지키기 위해 선택"

(2) 연재 안재승 칼럼

- [안재승 칼럼] 윤석열의 상식 밖 언행, 참을 수가 없다
- [안재승 칼럼] "폭등한 집값 떨어뜨리겠다"는 후보가 없다
- [안재승 칼럼] 판사는 전지전능한가
- [안재승 칼럼] 세금 깎아주면 표 줄 거라는 민주당의 착각
- [안재승 칼럼] 부끄러운 '포털 종속', '탈포털'에 시동 걸자